

미주 문학장의 보편성과 특수성

-미주문학사 기술을 위한 서설*

이형권**

1. 미주문학과 한국문학
2. 미주문학사 기술을 위한 서설
3. 미주문학과 세계문학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미국 내에서 100여 년(20세기 초-현재) 동안 전개되어 온 한인문학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한 서설에 해당한다. 미주 문학은 국내의 충청도 문학이나 경상도 문학, 전라도 문학 등과 유사한 한국 지역문학의 한 영역이다. 또한 중국의 한인문학, 일본의 한인문학, 중앙아시아의 한인문학 등과 같은 국외의 지역 문학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주 문학사를 기술하려는 시도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미주문학사 기술은 북미주의 미국 한인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캐나다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한인문학도 그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장르의 범위로는 시, 소설, 평론, 수필, 희곡 등 문학의 모든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 충남대학교 교수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주 문학사 기술은 한국 문학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문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아주 요긴한 일이다. 특히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문학사의 범주를 국내 문학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 논문의 기본 논리는 미주문학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교직하여 문학사적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그 보편성은 현대문학사로서의 전개과정, 작가와 문단의 지형도, 문예지와 작품집의 발간, 지역 문학으로서의 성격 등으로, 그 특수성은 이민문학으로서의 특성, 리리시즘과 순수문학의 우세, 이중 언어의 환경, 수필문학의 활성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 하에 미주문학사 기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미주문학의 작가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고 그에 따른 자료의 망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 미주문학, 문학사, 보편성, 특수성, 문학장, 지역문학, 다양성, 셋방주의

1. 미주문학과 한국문학

미주문학은 '북미주와 남미주 지역에서 전개된 한인 문학'¹⁾을 일컫는다. 미주문학은 한국현대문학사의 실체로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한인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미주문학은 한국 근대문학 태동기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민문학의 성격을 띠고 출발하였으며, 이후 한국문학의 역사적인 흐름과 맥락을 함께 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물론 미주문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 내의 한인문

1) 이 용어는 한국 문학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한국 문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지칭한다면, 한인 문학은 한국 문학 외에도 국적은 비록 이민간 국가로 되어 있더라도 한국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작품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학이지만, 미국 이외 지역의 문학도 일정한 수준의 실체를 간직하고 있는 문학사적 존재이다. 특히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한인들은 나름의 실천적 역량을 과시하면서 문학의 한 흐름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미주문학의 실질적 범주는 미국 내의 한인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국가들의 한인문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미주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사 기술의 가능성과 실천 방안을 탐색해 보는 데 있다.

미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개별 작가론에서부터 작품론, 주제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 조규익은 미주지역의 이민 초기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종합적인 연구서²⁾를 간행한 바 있으며, 이동하·정효구는 미주지역의 시나 소설과 관련된 작가론/작품론을 모아 단행본³⁾으로 발간했다. 또한 김종희는 미주문학뿐만 아니라 중국지역의 한인문학까지 망라하는 연구서⁴⁾를, 임진희는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과 관련된 연구서⁵⁾를, 송명희 등은 미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캐나다를 포함하는 미주지역 문학과 관련된 연구서⁶⁾를 각기 출간했다. 논문이나 평문도 활발하게 발표되었는데, 최미정은 미주지역의 시문학을 텍스트로 하여 박사논문⁷⁾을 발간했고, 김승희는 차학경의 텍스트 『딕테』를 탈식민주의적/페미니즘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논문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이명재는 미주 한인문학의 현황과 특성을 정리하는 논문⁹⁾

2) 조규익 편,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5』, 월인, 1999.

3) 이동하·정효구, 『재미한인문학연구』, 월인, 2003.

4) 김종희,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5) 임진희,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 태학사, 2005.

6) 송명희, 『미주문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화사, 2010.

7) 최미정, 『재미한인 한국어 시문학 연구-김정기, 최정자, 김윤태, 장석렬 시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대학원(박사), 2010.

8) 김승희, 「차학경의 텍스트 『딕테』 읽기: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적 독해」, 서강대학교 인문대학, 『서강인문논총』 제13집, 2000.

9) 이명재, 「남미주의 한글문학」, 국제한인문학회, 『국제한인문학연구』 7권, 2010.

을, 장영우는 해방 후의 재미동포소설을 분석하는 논문¹⁰⁾을, 김정훈·송명희는 국권상실기 재미한인시문학을 분석하는 논문¹¹⁾을 각각 발표했다. 각종 문예지에서는 적잖은 평론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동안 수십 편에 달하는 저술물이 발표된 셈인데, 이처럼 미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주문학 연구는 대부분 단편적인 작가론이나 작품론 혹은 개괄적인 소개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아직 문학 현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나 문학사 기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무릇 문학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한 문학사적인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을 터, 개별 작가나 작품도 문학사적인 평가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다만 문학사 기술을 위해서는 일련의 선행 요건이 필요한데, 미주 문학은 현재 문학사 기술이 가능할 정도로 그 요건—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창작 성과와 그에 대한 연구—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미주 현지나 국내에서 발간된 미주 문인들의 각종 문예지나 동인지, 그리고 단행본들의 양은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 이들은 모두 문학사 기술의 실질적인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미주문학을 문학사의 단위로 설정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나름의 의의도 갖추고 있다. 미주문학은 한국문학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지역문학으로서의 보편성과 이민문학으로서의 특수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한국문학사의 범주 내에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강원 등을 단위로 하는 지역문학사가 이미 기술된 것처럼¹²⁾ 미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10) 장영우, 「해방후 재미동포소설 연구」, 상호학회, 『상호학보』 18호, 2006.

11) 김정훈·송명희, 「국권상실기 재미한인시문학 연구」,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 55호, 2012.

12) 지역문학의 사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저서는 다음과 같다 : 양왕용 외, 『부산문학사』, 한국문인협회부산지회, 1997. 전북문인협회 편, 『전북문학사』, 전라북도, 1997. 박명용 외, 『대전문학사』, 한국예총대전시지회, 2000.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출판부, 2005.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 2005. 경상북도문인협회

지역문학사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주문학은 이민문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작품의 수월성 차원에서 국내의 문학 작품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외의 지역문학이나 이민문학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문학사적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주문학사 기술은 한국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작업으로서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2. 미주문학사 기술을 위한 서설

1) 미주문학장의 보편성과 특수성

미주문학장¹³⁾이 지니는 한국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은 (1)현대문학사로서의 전개과정, (2)작가와 문단의 지형도, (3)문예지와 작품집의 발간, (4)지역 문학으로서의 성격 등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우선 (1)현대문학사로서의 전개과정 차원에서 미주문학사는 한국문학사의 시간 단위와 유사하게 전개되어 왔다. 시간적 범위는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00년 정도의 기간¹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일반적인 시기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내 문학사에서 흔히 활용되는 10년 단위의 시기 구분은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주문학의 규

편, 『경북문학사』, 경상북도, 2007. 남기택, 『강원영동지역문학의 정체와 전망』, 청운, 2013. 이상규 외, 『예향의 도시, 문학을 말하다』, 대구문화재단, 2013.

- 13) 문학장 개념은 부르디외의 정의를 따른다. 문학사는 작가나 작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생산, 유통의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장의 역사나 다름없다. 특히 부르디외의 “문학장은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힘들의 장이다. 그 힘들은 그들이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행사된다.”(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문학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306쪽)는 부분을 참조한다.
- 14) 근대적 의미의 미주 이민의 역사는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서재필, 박영효, 서광범 등의 도미가 첫 사건이며, 집단적인 노동이민은 1903년 1월 13일 97명의 동포가 호놀룰루에 도착한 시점이다. 미주 이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국제역사학회 한국위원회의 『한미수교 100년사』(1982)와 한미동포재단의 『미주 한인 이민 100년사』(삼화인쇄,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모가 1980년대 초부터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70년대 말까지는 광복을 전후하여 두 시기로 구분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각각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근대문학의 출발이 20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창가나 신소설을 창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점¹⁵⁾, 이후 1960년대까지는 미미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한국 문단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 1970년대 이후에는 일정한 규모의 문단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문학사의 수준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작가와 문단의 지형도와 관련해서 미주문학의 작가 분포는 한국문단의 상황과 흡사한 특성¹⁶⁾을 보여준다. 문인의 구성비를 보면 시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 다음으로 수필가, 소설가 등이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희곡작가나 평론가는 드문 편이다. 이런 특성은 한국 문단에서 대략 절반 이상이 시인이고 그 외에 수필가, 소설가, 평론가, 극작가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는 점과 비슷한 것이다. 또 작가로서 인정을 받는 등단의 과정도 한국 문단과 다르지 않다. 『미주한국일보』와 『미주중앙일보』 등 일간 신문의 신춘문예나 『미주문학』이나 『미주시정신』 등 문예지를 통해 등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지망생들은 한국의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미주문인협회, 펜문학회와 같은 문인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글마루나 시

15)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 연구편』, 월인, 1999, 49쪽. 미주 한인들의 애국계몽운동을 이끌었던 『신한민보』에는 “1918년 이후로 접어들면서 창가나 국문시 모집 광고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또한 소설 부분에서는 1909년부터 같은 신문에 작자미상의 「애국자성공」, 「탈혈월양」(위의 책, p.114)과 같은 과도 기적 소설들이 발표된다. 이러한 창작 성과와 함께 본국에서 신소설, 창가 등이 유입되어 나름의 근대적인 문단이 형성되는 것이 20세기 초이다.

16) 미주의 대표적인 문학 단체인 ‘한국문인협회 미주지회’에서 발간하는 계간 『미주문학』(2011년 겨울호)의 주소록을 보면 323명의 문인이 등재되어 있다. 이 숫자는 한국의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국내 각 지역문단의 문인 숫자와 매우 비슷하다.

문학회와 같은 동인회의 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3)미주문단에서는 문예지와 작품집의 발간도 활발하다. 창간 순서를 기준으로 보면 『지평선』(1973), 『새울』(1977), 『이민문학』(1979), 『미주문학』(1982), 『기독교문학』(1983), 『미주이민문학』, 『크리스찬문학』(1983), 『신대륙』(1985), 『객지문학』(1986), 『열대문화』(1986), 『울림』(1987), 『가교문예』(1987), 『문학세계』(1988), 『글마루』(1988), 『外地』(1989), 『뉴욕문학』(1991), 『워싱턴문학』(1991), 『시카고문학』(1991), 『미주기독교문학』(1996), 『캐나다문학』(1997), 『해외한국시』(1993), 『로스안데스문학』(1996), 『한뿌리』(1997), 『샌프란시스코문학』(1995), 『해외문학』(1997), 『재미수필』(1999), 『四海』(1999), 『미주동백』(2000), 『문학가주』(2002), 『문학아메리카』(2002), 『미주펜문학』(2004) 등이 창간되었다. 이들 가운데 미주문인협회의 기관지인 『미주문학』, 미동부 한인문학회의 『뉴욕문학』, 미주 크리스찬문인협회의 『크리스찬문학』, 재미 수필문학가협회의 『재미수필』, 해외문학회의 『해외문학』, 글마루문학회의 동인지인 『글마루』 등이 오늘날까지 속간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미주시인협회의 『미주시정신』과 미주시학회의 『미주시학』이 연간지로 발간되고 있는데, 『미주시학』은 한글시를 영어로 번역하여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게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미주의 작가들은 미주에서 발간하는 문예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간하는 문예지를 무대에서도 활동해 왔다.

미주문학의 특수성은 (1)이민문학으로서의 특성, (2)리리시즘과 순수문학의 우세, (3)이중 언어의 환경, (4)수필문학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1)이민문학으로서의 특성은 미주문학이 갖는 특수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다. 미주의 이민문학은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일본과 같은 데서 전개되어 온 이민문학과 함께 한국문학의 중요한 자산이다. 자의적이었던 타의적이었던, 자발적이었던 강제적이었던 고국을 등지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은 국내의 창작 환경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특이성을 지닌다. 그래서 문화적 공동체의 의식이나 노스텔지어, 유랑의식, 상실감, 민족애나 저항성 등이 국내의 문학에 비해 강하게 드

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주지역은 특히 공간적으로 모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점, 다른 지역에 비해 자발적인 이민이나 지식인 집단의 이민이 많았다는 점, 아시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간직한다. 이러한 특이성은 당연히 문학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2)미주문학의 문예사조적 특성은 국내의 문단에 비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이를테면 미주문학에도 리얼리즘 경향이나 모더니즘 경향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나 작품의 성향을 볼 때 리리시즘 경향이 우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주문학이 갖는 이민문학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다. 주지하듯 미주문학은 망명문학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본국이나 현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지 않은 것이다. 모더니즘 차원의 실험 의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모국의 언어에 대한 온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문학에서 실험의식은 언어나 형식에 대한 불만을 기초로 하는 것일진대 이국땅에서 모국어와 그것을 토대로 한 문학은 그런 불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노스텔지어를 근간으로 하는 리리시즘의 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리리시즘의 경향은 미주문학이 세계 문제나 인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노동착취나 신식민주의와 같은 ‘중요한 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민족이나 인종 차별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정체성에만 관심을 둔 ‘배꼽 들여다보기’¹⁷⁾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가족애나 개인적 향수에 기반을 둔 리리시즘은 비단 미주문학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 전체가 떠안고 있는 문제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미주문학은 협애한 한국적 상황이나 한국적 정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문학적 환경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주문학사 기술에서 소수의 작품일지라

17) 일레인 킴, 「한국계 미국문학 속의 흑인(성)과 미국인의 정체성」, 김우창 외, 『경계를 넘어서 글쓰기-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 민음사, 2001, 413쪽.

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업자본주의나 신제국주의와 관련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시나 소설을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 미주문학사 기술의 과정에서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한국문학의 창출을 위한 미주문학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3)이중 언어의 문제는 미주문학을 비롯한 재외 한인문학의 환경을 특징짓는다. 외국에서 한국어로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영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는 미국에서 한국어라는 소수자 언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은 보통의 열정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한국어를 통한 문학 활동은 이국에서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요긴한 일인 것이다. 특히 문학 동인이나 문화회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한국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이민 생활의 유랑의식을 극복하고 문화적 뿌리의식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 역할을 한다.

또한 이중 언어의 환경은 현지어로 창작된 작품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영어로 창작을 하여 미국 문단에서 호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과연 한인문학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물론 협의의 한국문학은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이다. 그러나 미주문학의 경우 한국어의 조건은 조금 느슨하게 적용해도 될 듯하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문학의 정체성은 언어보다는 문화적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활동해온 김은국, 차학경, 이창래 등의 작품들은 비록 영어로 창작되었지만 대부분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인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더구나 탈식민주의적 인식이 포함된 작품이라면 언어의 전유¹⁸⁾를 통한 비판적 인식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도 언어 문제에는 개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글로 창작된 작품과 함께 미주지역의 현지 언어로 창작된 한인의 문학 작품을 문학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지역에서 한인 1.5세대나 2세대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영어로 된 작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문학의 경계라는 것은 정치나 경제 차원의 경계와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의 경계가 있어서는 적어도 국적의 문제를 너무 경직되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문학이야말로 현실의 공동체 보다는 상상의 공동체¹⁹⁾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작품은 그 언어와 상관없이 문학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들의 작품은 외국에서의 이민 생활에서 오는 한인의 문화적 충격과 불협화음을 한국인다운 문화적 감수성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4)미주문단에는 수필문학이 특별히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문단에서도 수필문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나 소설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미주문단의 중심지인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에 거점을 둔 미주수필문학가협회 회원들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수필문학의 활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나는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가장 주관적인 문학양식인 수필이 잘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필 문학이 다른 문학 양식에 비해서 누구나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민 생활의 와중에 전문적인 창작 공부를 하고 작품을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18) 인도를 비롯한 제3세계 작가들이 영어를 사용하여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비판적 작품을 생산했던 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인도제도 출신의 작가 나이폴(Vidiadhar Naipaul, 2001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식민제국의 언어인 영어를 통해 서구 식민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19)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윤형숙 옮김, 나남, 2004)에서 말한 용어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앤더슨은 근대의 민족 개념을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 글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데에는 수필문학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다. 수필문학은 작가의 취향이나 주제, 소재에 따라서 정통 에세이나 미셀러니, 수기, 일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창작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장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이민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미주에서 수필문학이 발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미주문학사의 목표와 방법

미주문학은 한국문학으로서의 보편성과 그 나름의 특수성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문학이다. 미주문학의 역사적인 의미를 정리하는 일이 미주문학사의 기술이라고 할진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와 범주를 설정하는 일이 요구된다. 우선 그 목표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확장적 한국문학사를 정립한다. 한국문학사는 시대적합성을 담보해야 할 역사적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문학사의 범주와 의의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근 20여 년간 한국문학사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²⁰⁾만 보아도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한국문학사의 사적인 정리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대적 특성은 글로벌리즘(globalism)과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일 터, 미주문학사에 대한 정리 작업은 그와 같은 시대적합성을 지닌 한국문학사 기술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도 필요하다.

20) 가장 최근에 방법론적 일관성을 통해서 기술된 한국현대문학사는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민음사, 1974)이다. 이 저술 이후 연대기적 문단 활동이나 문학사건을 나열하는 한국현대문학사류는 간간히 이루어져 왔지만, 그나마도 1990년대에는 물론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윤식 편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 1989)는 많은 저자들이 참가하여 일관성이 없고, 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사』(서울대출판문화원, 1992)는 대학교재로 집필되어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적인 진술이 지배적이다.

둘째, 지역문학사로서의 미주문학사를 정립한다. 최근 들어서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을 단위로 하는 지역문학사 기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문학사의 기술은 소수자 문학의 정리를 통한 한국문학사의 확장성을 위해 아주 긴요한 작업이다. 지역문학은 이른바 중앙문학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성을 지닌 문학사의 단위라는 것이 이즈음 문학사 연구의 추세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세계화라는 외향적 가치와 지방화라는 내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글로컬리즘(glocalism)의 시대이다. 괴테의 명언대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터, 미주지역 문학사를 지역문학의 연구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일은 한국문학사 연구를 풍요롭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의 미주문학사를 정립한다. 한국의 역사 혹은 한국문학사에서 디아스포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적 시련이 유난히 많았던 한인의 역사에서 유랑의 역사는 길고 길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는 문학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배태되어 왔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한인들은 국권의 침탈과 혹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만주와 미주 지역으로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주지역 한인들은 특히 국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질감도 심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의식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디아스포라는 근대문명과 결부된 민족주의 이후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오늘날 문학에서도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넷째, 이민문학 혹은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미주문학사를 정립한다. 들뢰즈(G. Deleuze)가 언급했듯이 소수자 문학²¹⁾은 특정 지역의 로컬리즘

21) 들뢰즈는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조한경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4)에서 소수자 문학의 원형으로 카프카의 문학을 예로 들고 있다. 들뢰즈는 특히 유태계 독일 작가인 카프카가 프라하에 살면서 체코슬라비아의 본래적 영토성에 대하여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주의 한인들은 미국을 비롯한 미주지역의 언어나 문화가 지니는 본래의 영토성에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여 미주 한인문학이 소수집단 문학의 성격을 지닐

(localism)에 토대를 둔 집단적, 정치적 특성을 지닌 대항적, 대안적인 문학이다. 미주문학은 한국문학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문학의 영역에서도 소수자 문학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다. 따라서 미주문학은 이중적인 소수자 문학 혹은 ‘타자의 타자’의 문학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문학사 연구는 미주문학이 주변문학사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적이고 대항적인 소수자 문학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실제로 미주지역 한인문학에는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 정신이나 미국의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 정신이 적잖이 드러난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미주문학사 기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오늘날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주문학은 현재 그 시간적 단위나 작품의 양적인, 질적인 차원에서 단위문학사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요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주문단은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민 1세대 작가들이 대부분 60-70대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노령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여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민 2세대나 3세대들이 한인문학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아무래도 그것은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최근 들어 미주문학이나 미주지역의 이민사회 자체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지 사회의 주류화를 지향해 나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주지역 문학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들의 망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미주문학사의 기술이 시급히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이다. 미주문학 자료들은 지금의 시점에서 정리, 활용하지 않으면 1세대 작가들의 퇴진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비록 미주문학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일본 지역의 한인문학 자료들에 비해서 심각한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편에 놓여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 이유는 미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간격이 커서 국내 문단과의 교류 빈도가 적고 그만큼 국내에 유입되어 보전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문학사 기술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 자료가 필수 요건일 터, 현재 1세대 작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미주문학사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주문학사의 공간적 범주는 미주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북미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하여 남미지역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 미국에서의 문학적 성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지역 한인문학사로 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 미주의 다른 지역에서 전개된 한인문학은 독립된 단위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한국문학사에서 방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별로는 미국의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캐나다의 토론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이 중심 역할을 해 왔다. 물론 이들 도시 사이의 연대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멀리 떨어진 미주라고 하는 지리 감각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학사 기술을 위해서는 일정한 방법론과 내용의 열개를 구상해야 한다. 문학사 기술의 방법에는 연대기적 방법, 진화론적 방법, 발전사관적 방법, 백과사전적 방법 등이 있다.²²⁾ 연대기적 방법은 10년이나 20년, 100년 단위의 시대 구분이나 왕조 단위의 구분을 전제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시간 단위와 문학 현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진화론적 방법은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로 진화해 나가듯이 문학 장르나 현상도 그렇게 진화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 기술하는 것이다. 문학의 역사가 생물학적 진화와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생물학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문학이 반드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22) 김열규, 「한국문학사 기술의 체문제」, 김열규 외,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9쪽.

되보 없이 진화만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발전사관적 방법은 고대, 근대, 현대와 같이 인류 문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발전 단계가 있듯이 문학사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이 방법은 문명의 발달과 문학의 발달이 온전히 일치한다는 전제를 두기 때문에 문학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백과사전적 방법은 문학 현상 전반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다양한 현상을 폭넓게 기술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문학사가의 일관성 있는 관점이나 주관이 결여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학사 기술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미주문학사 기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연대기적인 방법과 진화론적인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미주문학사 기술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미주문학이 초창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양적, 질적인 진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가령 1900년대 초의 창가나 신소설에서 1990년대의 실험적인 자유시나 해체소설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시간 단위별로 형식과 내용상의 진화를 해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미주문학사 100년의 기간 동안 진화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실제 기술의 과정에서는, 앞서 시간적 범위에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 초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현저히 다른 수준의 진화를 보여준다는 점을 반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 문학의 진화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둘째, 작품·작가의 평가에서 역사주의와 문학사회학, 그리고 형식주의의 관점을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²³⁾ 즉, 작품의 선택과 평가에서 미주지역 한인들의 삶과 그 사회를 얼마나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일차적인 고려의 대상이라면, 그것이 문예미학의 차원에서 얼마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지의 문제가 또 다른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미주

23) 문학사의 대상은 결국 문학의 역사성과 예술성이고, 그들 둘은 상호보완적이다. 박철희, 「문학사 기술의 현 단계와 방향」, 김열규 외, 앞의 책, 73쪽.

문학은 역사적이 차원이거나 문예사조의 차원에서 국내의 문학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개화기 문학의 애국계몽이라는 주제는 국내의 문학과 유사하지만, 일제 시대나 1980년대의 국내문학에서 나타나는 강한 정치성이나 실험성은 자주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수월성 차원에서도 국내의 문학에 비해 다소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주문학사의 기술 과정에서 이런 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를 할 예정이다.

셋째, 장르사의 방법과 주제사의 방법을 병용하고자 한다. 미주문학사 기술은 장르사 중심으로 하기에는 시기별 장르의 성쇠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는 장르를 중심으로 기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하여 각 장(시기구분 단위)의 제1절에는 장르사와 주제사를 아우르는 개관 부분을 설정하고, 제2절부터는 그 시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르나 주제와 관련된 문학적 사건을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문학사 기술을 위해서는 주요 작가와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터, 선택의 기준은 예술적 완성도와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두 가지를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시기에 문학적 사건으로서의 언어 예술로서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비추어 우리 민족의 삶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3) 미주문학사의 내용과 목차(안)

미주문학사 기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차(안)와 집필의 내용을 설정해야 한다. 문학사 기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유의미한 문학적 사건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합리성과 적합성, 일관성이라 할 수 있을 터, 앞서 밝혔던 예술성과 역사성을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문학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미주문학사의 정체성과 방법론

1. 미주문학의 정체성과 언어의 문제
2. 미주문학사의 방법론과 시기 구분

제2장 한인 문학장의 형성기

1. 개관(1903-1945) : 이민자 의식과 애국계몽의 문학
2. 『신한민보』²⁴⁾의 창가와 신소설의 선구적 의의
3. 자유시의 형성과 근대소설의 형성
4. 수필, 희곡, 평론의 등장과 장르의 분화
5. 애국정신과 독립 운동의 문학적 형상
6. 강용홀의 「초당*The Grass Roof*」과 이민의 서사

제3장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착기

1. 개관(1945-1980) : 비판 정신과 유랑 의식의 문학
2. 동인지 『지평선』의 창간과 한인 시단의 형성
3. 서울문단과 미주문단의 경계인들
4. 미주문학의 지리학과 장소애의 형상화
5. 소수자 의식과 아메리칸 드림의 거리
6. 이중 언어의 활용과 유배자 의식 : 김용익과 김은국 등

제4장 디아스포라 문학의 발전기

1. 개관(1981-1990) : 문예지의 활성화와 주제의 다양화
2. 『미주문학』의 창간과 본격 문단의 형성
3. 종교문학의 전개와 『크리스찬문학』의 역할
4. 지역문학의 다변화와 동인지의 활성화
5. 캐나다와 브라질·아르헨티나에서의 한인문학
6. 언어의 전유와 혼성적 정체성 : 차학경과 김난영 등

제5장 디아스포라 문학의 확장기

24) 1909년 2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국민회의 기관지로 창간되었다. 편집 및 발행인은 최정익(崔正益)으로서 매주 수요일 발간한 주간지로서 국내외의 소식과 일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많이 실었다. 초창기 미주문학을 가능케 했던 매체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개관(1991-2000) : 문화적 동화와 보편성 지향의 문학
2. LA 폭동과 한인문학의 사회학
3. 다양한 문예지의 속간과 문학성의 고양
4. 수필문학의 부흥과 '재미수필문학가협회'의 활동
5. 희곡, 평론, 아동문학, 르포 문학의 전개 양상
6. 영어 문학의 확산과 보편성의 지향 : 이창래와 수잔 최 등

제6장 미주문학사의 의의와 미래

1. 미주문학사의 특수성과 의의
2. 모국어의 운명과 미주문학의 미래

전체적으로는 미주문학사가 대체적으로 '디아스포라 문학의 형성기-정착기-발전기-확장기'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기술해 나갈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미주문학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에 속하는 것일 터, 이민자로서의 미주문학 작가들 대부분은 디아스포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이민 생활의 고달픔을 다루거나 향수의 서정에 빠져들거나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을 드러낼 때도 그 배후에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드리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현지문화와의 동일시를 다루는 작품에서도 디아스포라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미주문학사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주문학사의 핵심 개념 내지는 열쇠어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할 수 있다.²⁵⁾

먼저 '1장 미주문학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서는 문학사의 대상으로서의 미주문학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한편 문학의 매재인 언어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언어의 문제는 특히 미주문

25) 가령 미국에 살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문학 작품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사실상 디아스포라 문학과는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문학을 가능케 한 것이 결국은 이민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과 결부되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는 디아스포라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미주문학을 소수집단의 문학으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 연구자들 사이에도 이론이 많은 부분으로서 이중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민자 문학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쟁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본 연구자는 언어의 문제에 관한 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또한 문학사 기술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히고 시기 구분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다. 특히 현대문학의 기점에 관해서는 남북한을 포함하는 국내의 사례들과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한국문학사의 방법론이나 시기 구분과 연계하여 그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장 한인 문학장의 형성기’(1903-1945년)에서는 미주지역에서 한인문학의 장이 형성되던 초창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문학사는 일반적으로는 국내의 애국계몽기나 일제치하의 문학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관점을 견지하겠지만, 더 세밀하게 고찰하는 과정에서 미주문학만의 특이성이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자유시와 근대소설의 형성과정과 관련된 내력을 정치하게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주문학 내에서 5대 문학 장르가 형성되는 과정도 살펴봄으로써 미주문학사가 문학 장르사의 차원에서도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볼 것이다. 또한 무장투쟁이나 3.1만세운동과 같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미주문학이 한국의 역사적 맥락과도 밀접하게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전유하여 창작된 유일한과 강용홀의 소설 작품이 간직하고 있는 향수의 의미를 이민문학사의 맥락에서 해석·평가할 것이다.

‘3장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착기’(1945-1980년)에서는 광복 이전과는 다르게 디아스포라 의식이 전경화되고 있다는 점, 이민자로서의 유랑의식이 모국에 대한 비판정신과 함께 드러난다는 점, 아메리칸 드림과 그 좌절감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적 형상을 얻고 있다는 점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광복 이전의 문학이 모국에 대한 동일시의 감정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과 향수가 지배적이었다면, 광복 이후의 문학에서 모국의 정치적 불안과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문학사회학의 차원에서 주목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주 지역 내의 여

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문학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서울 문단에 문학적 연고가 있는 문인들이 미주 문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두 문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실도 중요하다. 한편으로 영어를 전유하여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배자 의식을 다룬 김은국과 김용익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에 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장 디아스포라 문학의 발전기’(1981-1990년)에서는 미주문학이 다변화와 전문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시기에 문학단체로서 미주문인협회, 미주시인협회, 크리스찬 문학회 등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문단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주문학』, 『외지』, 『크리스찬 문학』 등과 같은 문예지 내지는 문예동인지들이 발간되면서 이른바 등단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캐나다나 브라질에서도 『새울』이나 『열대문화』와 같은 동인지가 등장하면서 미국 이외의 미주지역에서도 한인문학이 형성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또한 영어를 전유하여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차학경의 탈장르적 문학 작품이나 김난영의 소설도 이 시기 주목해야 할 문학적 사건으로 다룰 것이다.

‘5장 디아스포라 문학의 확장기’(1991년-2000)에서는 미주 문학의 주제가 한인공동체 의식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미주문학은 한국문학사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미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미국문학 내의 소수민족 문학이나 보편적인 문학을 지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때 미국 내 한인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LA폭동’은 한인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미국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물론 1980년대에 활성화되었던 문학단체 활동이나 문예지 발간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필문학가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수필 문학이나 르포 문학의 활성화는

당시의 국내 문학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또한 이창래와 돈 리, 노라 옥자 켈러와 같은 작가들의 소설은 미국 문단 내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²⁶⁾ 그 문학사적 의의를 탐구하고 정리해 보는 일은 미주문학사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무리에 해당하는 '6장 미주문학사의 의의와 미래'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주문학사 100년이 한국현대문학사 100년의 맥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사적, 문학적 의의를 갖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미주문학의 실태를 개괄해 보면서 이민 1세대 혹은 모국어 세대가 감소하면서 미주문학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미주문학은 새로운 신인의 등장이나 문학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 2세대나 3세대들은 한인문학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여 앞으로는 미주지역의 한인 문학장이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미주문학이 과연 독립된 단위로서의 지역문학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문학장이나 미국의 문학장에 직접 편입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3. 미주문학과 세계문학

미주문학은 한국문학사의 자장 안에 존재하는 지역문학사의 한 단위로서 충분한 조건과 범주를 갖추고 있다. 미주문학은 충청도 문학, 전라도 문학, 경상도 문학과 같은 국내의 지역문학과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지역 한인문학, 일본지역 한인문학, 중앙아시아 한인문학

26) 미국문단 내에서 주목을 받는 한인작가들로 이민 1세대는 강용훈, 김용익, 김은국 등을, 이민 1.5세대는 이창래, 이혜리, 차학경, 노라 옥자 켈러, 수키 김 등을, 이민 2세대는 김로녕, 레오나드 장, 마리 리, 수잔 최 등을 들 수 있다. 김중희, 「미주 한국문학의 현황과 과제」, 『인문학연구』 제7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18-19쪽 참조.

등과 함께 해외의 지역문학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문학사의 실체이다. 지역문학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사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다양성을 확장해 나가는 데 긴요한 일이다. 국내외 지역문학의 활성화는 문학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생물학적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생물종의 다양성이 필요하듯이 한국문학의 건강한 생태는 그 다양성으로부터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글로벌 시대를 넘어 글로벌리즘 시대이다. 글로벌리즘이라는 말에는 진정한 세계화는 지방화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때 지방이라는 말은 특정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범주화하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이라고 해서 지방이 아닌 것은 아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모두 일종의 지방 단위라 할 수 있다. 미주나 아시아, 유럽과 같은 큰 단위나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 단위도 지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한국문학사 내부의 지역문학사를 범주화할 때 해외 문학은 국내 문학처럼 작은 단위로 나눌 수는 없다. 그렇게 나누어서는 한 인 작가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지역문학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시대의 문학적 아이콘은 지역문학의 특성을 고양하여 그 독특한 자질을 가지고 세계문학의 범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한국문학사는 세계문학사의 한 부분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일 터, 미주문학사 기술은 그 역할을 부여받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주문학사 기술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미주 지역에 폭넓게 퍼져 있는 기본 자료들을 어떻게 수합하느냐의 문제이다. 적어도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간행된 문학 자료들을 최대한 수합해야 할 터, 가능하면 이들 지역을 답사하여 자료를 최대한 수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주문학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나라의 자료들도 미국 쪽에 그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수집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한국문학사나 다른 지역문학사와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의 한국문학사 기술은 근래에 들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다른 지역의 문학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만족스런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다. 결국 현재의 성과를 최대한 참조하면서 미주문학사를 선구적으로 기술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셋째, 영어를 비롯한 현지 언어로 창작된 작품들에 대한 선별과 정리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다행히 적지 않은 작품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결국 외국문학 전공자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미주문학사의 기술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중앙아시아지역문학사, 중국지역문학사, 일본지역문학사 등의 기술을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국내의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문학사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한국문학사가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사 기술은 과거의 문학을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문학을 성찰하고 미래의 문학을 전망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미주문학사 기술은 한국문학사의 확장성을 제고하는 한편 본격적인 한국현대문학사 기술을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경상북도문인협회 편, 『경북문학사』, 경상북도, 2007.
-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 2005.
- 국제역사학회 한국위원회, 『한미수교 100년사』, 1982.
-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출판부, 2005.
- 김승희, 「차학경의 텍스트 『디테』 읽기: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적 독해」, 서강대학교 인문대학, 『서강인문논총』 제13집, 2000.
- 김열규 외,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4.
- 김정훈·송명희, 「국권상실기 재미한인시문학 연구」,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 55호, 2012.
- 김중희, 「미주 한국문학의 현황과 과제」, 『인문학연구』 제7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 김중희,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 남기택, 『강원영동 지역문학의 정체와 전망』, 청운, 2013.
- 박명용 외, 『대전문학사』, 한국예총대전시지회, 2000.
-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 송명희, 『미주문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화사, 2010.
- 양왕용 외, 『부산문학사』, 한국문인협회부산지회, 1997.
- 이동하·정효구, 『재미한인문학연구』, 월인, 2003.
- 일레인 김, 「한국계 미국문학 속의 흑인(성)과 미국인의 정체성」, 김우창 외, 『경계를 넘어서 글쓰기-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 민음사, 2001.
- 질 들뢰즈, 조한경 역, 『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4.
- 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 이명재, 「남미주의 한글문학」, 국제한인문화회, 『국제한인문학연구』 7권, 2010.
- 이상규 외, 『예향의 도시, 문학을 말하다』, 대구문화재단, 2013.
- 임진희, 『한국계 미국 여성문학』, 태학사, 2005.
- 장영우, 「해방후 재미동포소설 연구」, 상호학회, 『상호학보』 18호, 2006.
- 전북문인협회 편, 『전북문학사』, 전라북도, 1997.
- 조규익 편,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5』, 월인, 1999.
-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1 연구편』, 월인, 1999.
- 최미정, 「재미한인 한국어 시문학 연구-김정기, 최정자, 김윤태, 장석렬 시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 삼화인쇄, 2002.

〈Abstract〉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in the Field of Korean American Literature

Hyeong-kwon Lee
(Chungnam University)

Korean American literature is a unit of local literary history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Korean American literature is equipped similar with conditions with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literature, etc. And Korean American literature plays a pivotal role as Korean literature of the foreign region in China, Japan, Central Asia and so forth.

Korean American literature will enhance the diversity of Korean literature. A variety of literature is need for literature ecosystem health. Therefore, Bachelor of Arts in Korea as part of the Korean American literature faithfully accepted and should be recorded. The range of literary Korea, the Korean people, including a range of overseas Korean literature as to include overseas is because.

Definitely over the world, a global era is the era of glocalism posts. Literature in the 21st century enha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literary world to expand the scope of literature that must go. Therefore because Korea is based on the such literature, the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will be able to be recognized as literature. To describe the history of Korean-American literature is necessity of the times.

The history the Korean American literature as possible should be describe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 writers of American literature are older than the age 60, there data are worried about being lost. Thus, artists are currently

active, considering the age at least 10 years should be the literary unity. So the fast study about there works and life should be started.

This paper analysed the history of Korean-American literatur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bout 100 years of Korean-American literature, and then artists and their works. The scope of the works covers Korean American writers(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f the Korean(or English) poetry, novels, essays, plays, criticism, etc.

Keywords : Korean-American literature, bachelor of arts, universality, particularity, the field of literature, local literature, diversity, glocalism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

